

학생들의 관점에서 본 대학 탄소중립의 필요성 및 과제

서울대학교 환경동아리 연합회의
의장 윤채림 (인류 18)





CONTENTS

01. 자기 소개

02. 학생의 관점에서 본 서울대학교

03. 대학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

04. 대학의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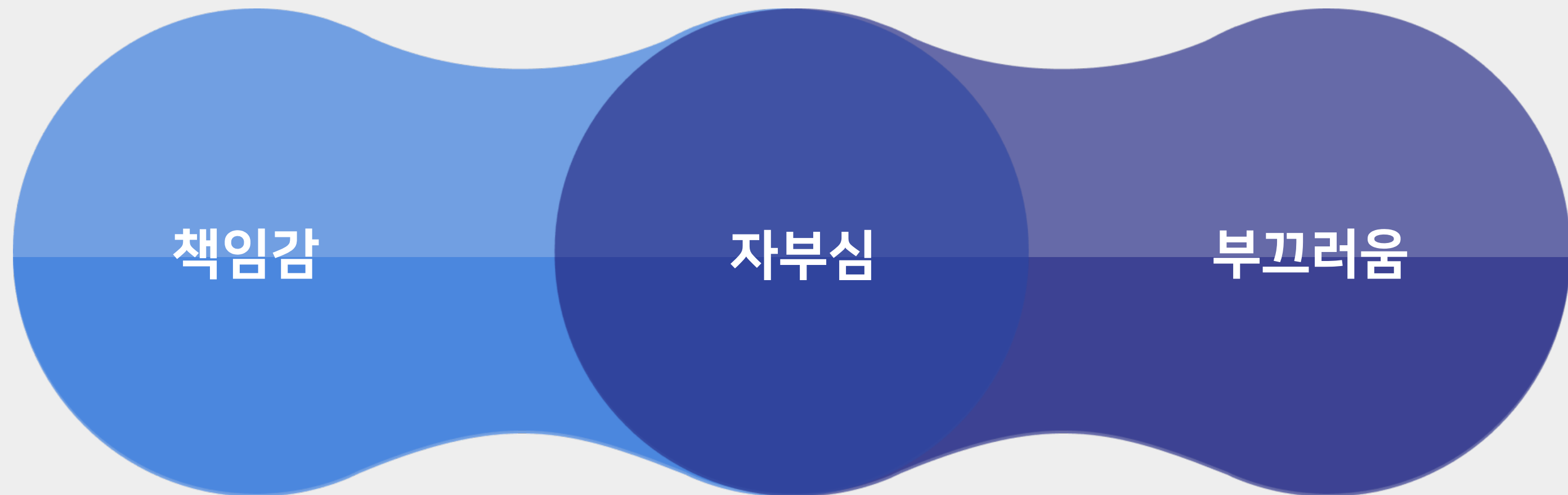
자기 소개

- 제주 중학교 학생들과 쓰레기 관련 프로젝트 기획 및 담당
- 제주 창의문화캠퍼스 기후위기문화대학 수강
- 서울대학교 중앙환경동아리 "씨알" 대표 (2021)
- <제 1회 국제 하늘물 페스티벌> 기획진
- SIWI "International Youth Rainwater Network" 스피커 참여
- 서울대학교 환경동아리 연합회의 의장
- 식목일 기념 국회 긴급토론회 <기후위기시대, 새로운 산불대응 전략>
지정 토론자 참여

내가 상상한 서울대학교



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의 나



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성취하고 싶었던 것



갈 길 먼 '지속가능한 친환경 서울대'

주영재 기자
2022.08.08 00:00

10년째 서울시 에너지다소비건물 중 에너지 사용량 1위 '불명예'
원인은 많은 연구 실험...'탄소공개 프로젝트' 모범사례도 있어

서울대학교는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10년째 서울시 에너지다소비건물 중 에너지사용량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.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(석유환산톤·에너지의 양을 에너지로 환산해 표준화한 단위) 이상인 사업장 및 건물을 뜻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은 2020년 기준 316곳이다. 서울대는 2020년 에너지사용량이 5만776toe, 온실가스 배출량은 10만5천톤(메탄, 아산화질소, 불소가스 등의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배출량 단위)로 1위에 올랐다.



출처 : http://m.weekly.khan.co.kr/view.html?med_id=weekly&artid=202207291417191&code=#c2b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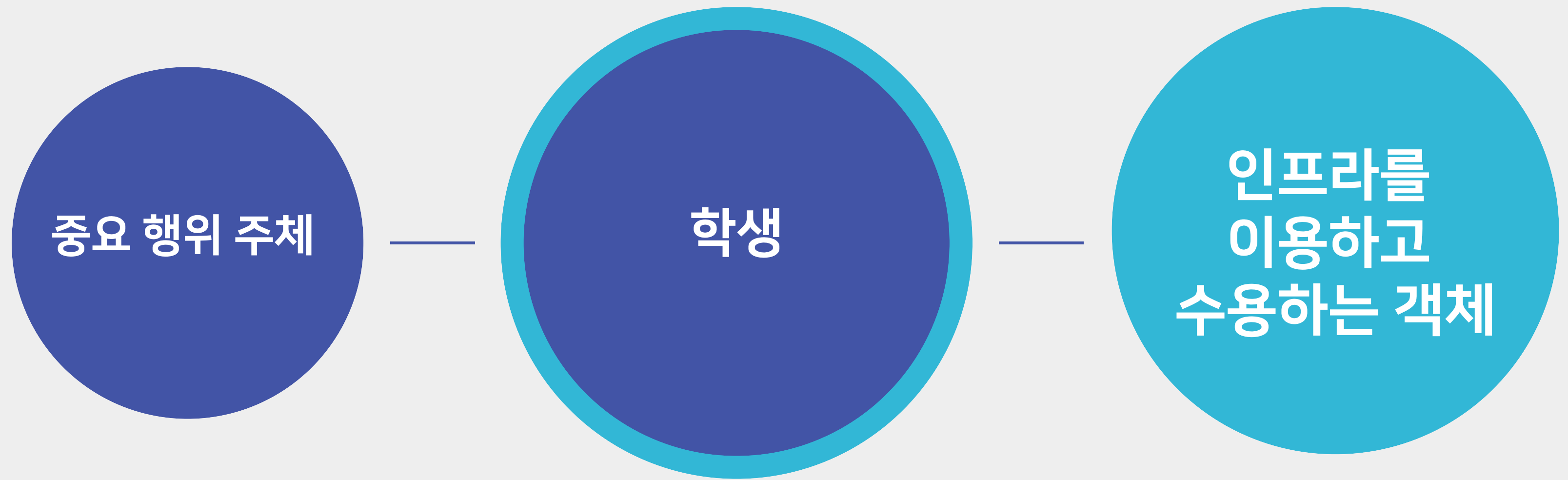
- 2020년까지 캠퍼스 내 물 자급률을 80%로 높인다
-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한다

서울대학교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

- 2020년 기준 서울시 건물 중 에너지다소비건물 중 에너지 사용량 1위
- 2011년부터 2020년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18% 증가
- 2019년 관악구 공공용 급수 사용량의 57% 서울대학교 사용
- 2019년 서울대학교 발생 폐기물 5,688톤

대학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

선택권의
부재



대학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

선택권의
부재

Ex)

- 종이를 선택
- 전기를 선택
- 음식을 선택
- 물을 선택

대학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

**책임지는
주체로의 성장**

- 나무를 아낄 권리와 책임
- 화력 발전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와 책임
- 육식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와 책임
- 쓰레기를 바르게 버릴 권리와 책임
- 물을 절약할 권리와 책임
- 재난을 만들지 않을 권리와 책임

서울대학교의 과제

- 2020년까지 캠퍼스 내 물 자급률을 80%로 높인다
-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한다

서울대학교의 과제

- 2020년까지 캠퍼스 내 물 자급률을 80%로 높인다
-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한다

책임지는
주체로의 성장

선택할 수 있는
인프라를 구축

학내 환경
단체들과의 협력

언제나 고민하고
또 행동할 수 있는
환경 구축

감사합니다.

**서울대학교 환경동아리 연합회의 의장
윤채림
(cofla357@snu.ac.kr)**